

“차라리 이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. ‘늘 달뜬 마음으로,
다만 변함없어라.’”

“그 금인은,”

내가 대답했네.

“정조를 뜻하기에 더 좋을 것 같구나.”

내 의견에 비르지니는 얼굴을 붉혔어.

이렇듯 행복한 두 가족은 그들을 둘러싼 모든 것에 영혼의 풍부한 감수성을 담아냈다네. 겉보기엔 그다지 별 볼 일 없는 사물들에도 세상 가장 다정한 이름을 붙여주었지. 잔디밭 주위로 오렌지나무, 바나나나무, 로즈애플나무를 동그랗게 빙 둘러 심어놓은 곳은, 가끔 풀과 비르지니가 그 가운데로 춤을 추러 가기도 했다고 해서 ‘한마음’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네. 한 오래된 나무는, 라 투르 부인과 마르그리트가 그 나무그늘 아래서 서로의 불행을 털어놓곤 했다고 해서 ‘뉘인 눈물’이라 불렸지. 또 밀이나, 딸기, 완두콩 등의 씨를 뿌려둔 작은 땅 일부분에다가는 ‘브르타뉴’와 ‘노르망디’라는 이름을 가져다 붙이기도 했네. 도맹그와 마리도 저들 주인을 흉내 내어 자신들이 태어난 아프리카의 고향을 기억하고자, 바구니를 만드는 데 쓰는 풀이 자라는 지대와 호리병박을 심어두었던 지대, 이렇게 두 군데를 각각 ‘앙골라’와 ‘풀푸앙트’라고 불렀다네. 이렇듯 고국을 떠나온 이들 가족은 각자 자기 고향에서 나는 산물을 통해 고국을 향한 감미로운 환상을 품고, 그것으로 이국땅에서 오는 회한을